

“환경被害補償 계몽이 시급한 과제다” 녹색의 전화 개통 朴英淑부총재



평민당 부총재 朴英淑씨(58)는 지난 8월 28일 서울 여의도 女性백인회관 2층에 환경문제상담소를 열고 상담을 위한 「녹색의 전화」(784-2003, 2004)를 개통했다.

『흔히들 환경문제 하면 공해문제를 떠올리게 되는데 보다 적극적인 차원에서의 환경문제는 「자연환경의 보존」인 것이지요. 최근엔 「개발」이란 명분으로 자연을 마구 훼손시키고 있는데 이거, 정말 문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朴부총재는 그동안 국회보사위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통해 환경 문제에 꾸준한 관심을 보여 왔다. 지난 7월 아당의원 전원과 함께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이후 시간의 여유가 있어 본격적인 환경보호운동을 위해 환경문제상담소를 차리게 된 것이라고. 이곳에서 하는 일은 환경훼손 및 피해보상을 위한 법률상담과 중소기업의 공해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상담 등이다.

상담은 녹색의 전화를 통한 전화상담 뿐 아니라 週3일은 전문가가 방문상담에 응하고, 요청이 있으면 현지방문상담까지 해주고 있다. 전문상담가 3명을 비롯, 10여명이 교대근무하고 있다.

이미 70여건의 사례가 접수된 상태. 『어마어마한 환경피해가 의외로 많더군요. 그러나 더욱 안타까웠던 것은 그 피해와 본인을 연결시키지 못해 더 큰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딱한 처지였어요. 따라서 환경피해보상에 대한 「계몽」이 우선 시급한 과제가 아닌가 싶더군요.』 朴부총재는 이렇게 밝히면서 피해자의 대부분이 재정적으로 취약하다는 데 더욱 가슴 아팠다고 말한다.

주머니에서 나오는 私費도 한계가 있을테니까 차차 후원자를 모을 계획이란다. 모든 상담은 무료로 실시된다.

사진: 羅映雲기자 글: 鄭寶庚기자